

■ 강원도, 지하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강원도는 먹는샘물, 온천수, 농업용 지하수 등 모든 지하수를 포함하는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인 『강원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확정하였다. 강원도는 지하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에 『강원도 지하수관리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05년 12월 용역을 완료하고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강원도 지하수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강원도 지하수관리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하수에 관한 기초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 우선대상으로 8개 시·군을 선정하여 『강원도 지하수관리계획』과 연계된 해당 시·군의 지하수관리계획을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수립 시행한다. 아울러 우선대상지역이 아닌 10개 시·군에 대하여도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둘째, 2005년말 현재 124개소 설치된 강원도 보조지하수관측망을 2014년까지 508개로 확충하며 또한,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 폐공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보조관측망으로 재활용하거나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셋째,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지하수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지역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지하수 수질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18개 시·군 지하수관리계획 에는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조사와 지하수 수질검사 등 지하수오염 방지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강원도 지하수관리계획』은 지하수의 안정적 수량 및 수질확보와 지속가능한 수자원이므로 청정 수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지하수종합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2014년까지 총 12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경북, 2006 친환경농업예산 대폭확대 지원

경상북도는 2006년 친환경 농업예산을 전년대비 211% 증액된 총 412억원을 투자하여 고품질·친환경 농업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규모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미래를 지키는 친환경의 땅』으로서의 경북도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행사를 계기로 경북도의 친환경 농업이 한 단계 더 성숙된 가운데 금년도에는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과 아울러 친환경농업 부문에 대폭적인 예산을 투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경북도가 쌀 산업 최우수 지역으로 선발된 바탕에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과 품질인증 농가호수 및 환경농산물 출하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이 수상에 크게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다.

2006년도 경상북도의 친환경 농업부문 주요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규모별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지구와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구축에 180억원을 투자하고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146억원을 투자하여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친환경 들판조성에 종합적인 지원을 펴기로 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 친화형 맞춤형비료 및 친환경 육묘장 설치 등 총 8개종류의 사업에 46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위해 총 6,000ha에 2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지원하기 친환경농업 도농교류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등을 작년에 비해 대폭 증액된 총 13억원을 지원기로 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실천 농업인들의 재배기술 함양과 선진국 해외연수로 벤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친환경 농업

실천 작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총 250명에 대해 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처럼 경북도의 2006년도 친환경농업 분야 투자액이 23개 사업에 총 412억원을 투자키로 한 것은 쌀 산업 위주의 일반농산물 생산으로는 농업소득 향상이 한계점에 있고, 이 땅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만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개인적 웰빙 열풍에서 LOHAS개념의 사회적 웰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휴양공간으로서의 농촌을 부각시켜 침체된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며, 쌀의 대체작목을 꾸준히 발굴하는데 경북 농정의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경기도, 숲 체험장 『갯향기 푸른교실』 조성

경기도는 가평군 상면 행현리 일원에 80년생 이상된 잣나무림 185ha와 주변 임야 1,494ha 등 총 1,679ha의 도유림을 자연생태계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방안으로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51억원을 투자 『갯향기 푸른교실』을 조성 하게 된다. 조성사업 첫째인 2005년에는 11억원을 투자하여 야생초화원·화전민터 복원지 부지조성, 숲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8억원을 투자 실시설계를 포함 숲가꾸기사업 196ha와 약 20종 8천본을 식재하는 숲조성 사업, 숲체험코스·숲체험센터 등의 부대시설 기반공사를 추진한다.

■ 경남, 올해 관광인프라 확충에 727억 투입

경남도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사계절 다양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내년에 727억원을 투입하여 진해해양공원 등 4개 부문 30개의 공공사업과 거제장목관광단지 조성 등 2개의 민자유치 사업을 통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부문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진해해양공원과 하동금성지구 관광개발 기반조성 등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8건에 247억원 ▷고성 당항포관광지 등 지정관광지 기반정비 사업 2건 70억원 ▷산청 전통한방휴양지 조성 등 문화-역사 관광자원개발 18건 335억원 ▷함안 입곡야생화생태공원 조성 등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2건 25억원 ▷거제장목관광단지과 함양 다곡리조트 개발 등 민자유치 2건 등이다.

도는 최근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보다 편리해진 교통망을 이용해 수도권 및 중부권의 도시주민들이 남해안을 즐겨 찾을 것으로 예상해 볼거리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관광기반 시설 확충에 나선 것이다. 근래 들어 거창국제연극제, 진주연동제 등 시군의 특색 있는 문화축제가 전국에 알려지면서 관광객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다 올 봄에는 국제행사인 고성공룡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국내외 손님들이 경남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 같은 사업들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풍부한 문화유적을 배경으로 경남이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시-도와의 차별화 전략을 내세워 추진해 온 핵심사업으로 '남해안 시대'와 맥을 잇고 있다.

그동안 펼쳐온 사업으로 지난 2000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는 지난해 말 현재 모두 20개 사업에 3,747억원(공공 2,660억, 민자 1,087억)이 투입돼 창원 주남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이 완료되고 남해 하모니리조트타운 조성 등 17건은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군함전시관 개관과 음식교 개통 등 사업의 일부를 마무리한 진해 해양공원 조성은 2007년을 완공 목표로 올 3월경 해양생물테마파크 사업에 착공하게 된다.

모두 22건에 총 사업비 5,287억원(공공 1,701억, 민자 3,586)이 투입돼 지난 1984년에 시작한 지정관광지

지자체 소식

개발사업은 밀양 표충사관광지 등 3건이 완료되었으며 창녕 부곡은천관광지 등 19건은 추진 중이다. 시군의 지구단위 별로 실시중인 지정관광지 개발사업은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814억원이 투입되는 23건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1999년부터 지난해 말 현재 하동 화개장터 복원 등 7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산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등 16건이 추진 중에 있다. 함양 상림 숲 주변개발 등 3건의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은 57억원을 들여 2002년부터 사업이 한창이다.

■ 서울시, 하수슬러지 친환경 처리로 개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 4개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중심이던 처리방법을 친환경적 방법으로 개선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4개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2005년의 경우 하루 1,920톤이었으며, 이는 해양배출 1,150톤(60%), 고화처리 260톤, 기타 건조·소각 등의 방법으로 510톤을 처리하여 왔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해양배출 억제 조약인 런던 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대비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1월부터 고화처리(수도권매립지에서 하수슬러지를 고화재와 혼합하여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량을 일 550톤으로 늘리고, 해양배출량을 860톤(45%)으로 줄여(2005년 대비 약 300톤 감축), 하수슬러지의 재활용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과 함께 5개기관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수슬러지의 해양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일 2,000톤의 하수슬러지를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고화처리시설을 건설키로 하고, 현재 협약을 체결중

에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건설비는 440억원으로 지자체별로 하수슬러지반입량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되며, 서울시 하수슬러지 반입량은 일 1,000톤으로 시설분담금은 건설비의 50%인 220억을 부담하게 된다. 고화처리시설 2,000톤은 2단계별로 나누어 건설할 계획이며, 우선 1단계 1,000톤을 2007년까지 건설키로 하였으며, 건설 후 고화처리된 하수슬러지는 전량 수도권매립지에서 복토재로 재활용된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하수슬러지를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에서 감량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4년 말부터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감량화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해양배출없이 육상에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울산시, 1월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적합'

1월 중 울산지역 정수장 수질은 모두 먹는 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월중 회야 등 정수장별로 미생물, 유해영양무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심미적 영양물질 등 55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 결과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매우 적합한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미생물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모두 불검출로, 유해영양 무기물질의 경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불소, 중금속(7개 항목), 보론 등 모두 불검출 및 기준치 이하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기물질인 농약류(4개 항목), 휘발성유기물질(12개 항목) 등 16개 항목은 불검출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인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등 8개 항목은 불검출 및 기준치 이하이다.

이와 함께 심미적 영양 물질인 경도, 과망간산칼륨소비

량,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황산이온, 세제, 망간, 아연, 동, 철, 알루미늄 등은 불검출, 적합, 기준치 이하 등으로 각각 파악됐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은 공급과정에서 지역별로 몇 개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 충남, 도시주거환경개선 2단계사업 본격 추진

충청남도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제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천안시 다가지구 등 6개시 51개지구(천안 17, 공주9, 보령4, 아산12, 서산5, 논산4)에 총 2,0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2단계사업의 51개 지구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총 2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군별로 보상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와 상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노인정, 놀이터, 복지시설 설치 및 불량주택개량 사업 등을 추진하여 낙후된 도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1단계사업은 4개시(천안, 공주, 아산, 논산) 14개지구에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12개지구 중 7개지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5개 지구는 올 상반기 중 완료예정이며, 천안구성·방죽안의 2개 지구는 공동주택 건설 방식으로 오는 2008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 충북, 수질개선사업 적극추진

충청북도에서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확대하

여 현재 72%인 하수도 보급률을 73%로 향상시키기로 하고 총 1,831억원의 사업비를 하수종말처리장건설, 하수관거정비, 분뇨처리시설개량, 자연형하천정화사업 등에 투입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충청북도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은 충주·주덕처리장등 16개소의 하수처리장신설 및 확충에 3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기존에 운영중인 청주 및 제천하수처리장의 수질개선을 위한 고도처리시설 설치에도 1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100~200ppm 및 COD(화학적산소요구량) 60~100ppm 등의 하수를 현행 방류수수질기준인 BOD 10ppm 및 COD 40ppm이하로 처리해 방류함으로써 수질을 크게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의 하천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수관거정비 사업에도 청주하수종말처리장등 12개 시.군 24개 지역에 325억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76km의 하수관거를 신설·교체하고, 특히 소요재원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의 조기 정비를 위하여 올해부터 민간자본 투자방식의 BTL사업을 도입 우선 청주시, 증평, 진천군의 하수관거정비에 3년간 94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 108km의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주요 수질오염원인 분뇨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사업비 73억원을 투입하여 충주분뇨처리장의 4개처리장의 분뇨처리시설을 개량하고, 자연형하천정화사업도 청주시 무심천등 3개하천 5.5km에 51억원을 투자하여 하상에 부착된 오염물질과 퇴적물을 제거 하는등 오염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자정능력 향상과 생태적 기능을 유지 하도록 정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질 개선은 물론 친환경적 하천을 조성하게 된다. ◀